

이슈브리프 647호
(2025. 1.16)

트럼프와 그린란드: 북극 미·중경쟁 심화

제647호

오일석 신안보연구실
조은정 안보전략연구실



국문초록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 개방과 풍부한 희토류 자원으로 인해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1.0에서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을 통해 희토류 자원 확보와 북극 항로의 전략적 통제권을 가지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자 했다. 북극 항로의 상업적 잠재력이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북극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인프라와 교육 지원을 통해 그린란드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극 실�크로드 구상과 함께 그린란드 자원 투자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며 미·중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극에서의 입지를 넓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2.0에서는 북극 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적, 군사적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강조 발언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 연구 및 자원 개발 협력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극 항로와 관련된 기후변화 연구를 통해 국제적 역할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미·중경쟁 구도 속에서 북극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 재편과 경제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그린란드, 미·중경쟁, 트럼프 2.0, 지정학, 북극항로, 희토류

트럼프와 그린란드: 지정학적 야망과 국제적 파장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2025년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¹⁾ 공교롭게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같은 날 그린란드를 명목상 관광차 방문하여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Make Greenland Great Again)’ 라는 구호를 전하자,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주변국에서는 코웃음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²⁾ 트럼프 당선인은 2024년 12월 22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린란드를 소유·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³⁾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구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8월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북극항로, 희토류 등의 광물 자원화 등은 물론 그린란드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표명하였다.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으로 그린란드는 전 세계 언론의 전례 없는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를 방문하여 당시 그린란드 총리인 킴 키엘센(Kim Kielsen)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덴마크 총리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자

1) Alys Davies & Mike Wendling, “Trump ramps up threats to gain control of Greenland and Panama Canal”, BBC(2025. 1. 8),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zn48jwz2o> (검색일: 2025.1.10.).

2) 선명수·박은영, “덴마크 총리 그린란드는 주민들의 것…매물 아니다”, 경향신문(2025. 1. 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2020035> (검색일: 2025.1.10.); 이본영, “그린란드 가지겠다는 트럼프, 큰아들 보냈다…덴마크 반발”, 한겨레(2025. 1. 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76903.html> (검색일: 2025.1.10.).

3) 김종훈, 트럼프, 그린란드에 또 눈독…“미국이 소유, 통제해야”, 머니투데이(2024. 12. 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2319365792148> (검색일: 2025.1.10.).

4)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Government of Iceland, 「Greenland and Iceland in the New Arctic」, December 2020, p.32, <https://www.government.is/library/01-Ministries/Ministry-for-Foreign-Affairs/PDF-skjol/Greenland-Iceland-rafraen20-01-21.pdf> (검색일: 2025.1.10.).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덴마크 방문 계획을 취소해 버렸다.⁵⁾

그러나 2019년 9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은 그린란드를 방문하여 그린란드의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및 관리들과의 환담한 바 있는 칼라 샌즈(Carla Sands) 주 덴마크 미국 대사와 백악관에서 만난 후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샌즈 대사는 특히 그린란드 남부에 있는 대규모 희토류 광산 지역을 방문한 바 있었다. 볼턴은 트위터를 통해 샌즈 대사와의 만남은 그린란드와의 경제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항과 광산에 대한 미국의 투자 의지를 강조하였다고 말하였다.⁶⁾ 이는 2017년 존 루드(John Rood)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툴레 공군기지에서 서명한 공항의 군사적 용도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루드 차관은 미국의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목적은 물론 민간의 이용을 겸할 수 있는 그린란드의 공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⁷⁾ 볼턴의 성명 이후 6주가 지난 시점에서,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인 토마스 울리히 브레흐불(Thomas Ulrich Brechbuhl)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누크(Nuuk)를 방문해 그린란드 내각의 의원들과 무역, 투자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를 논의하였다.⁸⁾

이처럼 트럼프는 왜 유럽 동맹국들과의 반복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가?

5) BBC, "Trump cancels Denmark visit amid spat over sale of Greenland", August 21, 2019,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9416740> (검색일: 2025.1.10.).

6) https://x.com/AmbJohnBolton/status/1169591060064088078?ref_src=twsrc%5Etfw (검색일: 2025.1.10.).

7) <https://x.com/usembdenmark/status/1041695240686632960> (검색일: 2025.1.10.).

8) Ingeborg Moe, "Trump fikk nei til Grønland-kjøp. Na har han sendt toppbyråkrat til øya", 2019, <https://www.aftenposten.no/verden/i/1n8LmX/trump-fikk-nei-til-groenland-kjoep-naa-har-hansend-toppyraakrat-til-oey> (검색일: 2025.1.10.).

미·중경쟁과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린란드는 북극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위치와 군사적 요충지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 간 경쟁의 중심에 있다. 2019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북극 항로, 희토류 자원,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현실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극 항로의 상업적 잠재력과 희토류의 자원화 가능성은 미국의 경제 안보 및 기술동맹 강화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1) 북극 항로의 상업적, 군사적 중요성

그린란드는 수 세기 동안 원주민의 사냥과 무역, 북유럽 선원들의 탐험, 유명한 북서항로를 찾는 유럽의 모험가들이 지나가는 곳이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린란드의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은 독일군이 그린란드 동부 해안선을 따라 유인 및 자동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여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⁹⁾ 북극의 혹독한 날씨와 험난한 지형과 더불어 그린란드의 광활한 영토는 그린란드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통제를 곤란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연합국과 협력하여 그린란드를 통해 북대서양에서의 독일군 작전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덴마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항복하자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차악책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알루미늄 생산에 사용되는 크라이올라이트(cryolite) 광산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은 물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할 수 있는 면허권을 미국에 부여하였다.¹⁰⁾ 알루미늄은 비행기 생산에

9) Michael Gjerstad and James Rogers, "Knowledge is Power: Greenland, Great Powers, and Lessons from the Second World War", The Arctic Institute (June 15, 2021), <https://www.thearcticinstitute.org/knowledge-power-greenland-great-powers-lessons-second-world-war/> (검색일: 2025.1.10.).

필수적인 광물로서 당시 미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다. 이후 1945년 세계대전으로 덴마크가 나치로부터 해방되면서 그린란드는 자연스럽게 다시 덴마크 왕국으로 복속되었다.

냉전기에도 미국은 그린란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에 미국은 북극에서 1,000마일 이내에 있는 그린란드 정상 부근에 툴레(Thule) 공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후 40년 동안 툴레는 소련의 미사일 공격 및 공습 가능성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장거리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전략 폭격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린란드 남동쪽 끝은 나토가 그린란드에서 아이슬란드를 거쳐 영국으로 이어지는 삼각 감시 및 정찰망, 일명 'GIUK Gap'¹¹⁾의 종착점으로 소련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냉전 이후 툴레 공군 기지는 전통적인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우주 감시 및 통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해군을 확장하고 북극권에서 해양 자산을 공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GIUK Gap'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북극 항로의 등장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지정학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¹²⁾ 2007년 러시아의 잠수정이 북극 해저에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극 군사 전초기지를 다시 활성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외국 군함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북극의 새로운 항로를 통해 '북극

10) David Priess, Martijn Rasser, "Take Greenland Seriously and Literally as a Vital National Security Issue", LAWFARE (Feb 20, 2020),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take-greenland-seriously-and-literally-vital-national-security-issue> (검색일: 2025.1.10.).

11)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에 펼쳐진 노르웨이해와 북해를 대서양으로부터 가르는 전략적 해상 요충지를 일컫는다. https://en.wikipedia.org/wiki/GIUK_gap (검색일: 2025.1.10.).

12) E.J.R. Cho, 'Strategic Evolution in the Arctic: 'The U.S. 2024 Arctic Strategy' and Its Global Implications' Issue Brief 110(7), INSS (14 Aug 2024) [ns/bbs/ib_en_view.do?nttId=41037247&bbsId=ib_en&page=2&searchCnd=1&searchWrd=](https://www.inss.gov.kr/ib_en_view.do?nttId=41037247&bbsId=ib_en&page=2&searchCnd=1&searchWrd=) (검색일: 2025.1.10.).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그린란드를 '북극에 가까운 국가'로 선언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북극항로가 열릴 경우 무역로를 보호를 명분으로 그린란드 인근과 북극해 등에서 군사적 전개와 전략적 작전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노르웨이는 물론 그린란드에도 연구 기지를 설립하고 그린란드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¹³⁾

(2) 미·중경쟁과 그린란드 자원 개발

그린란드의 빙상과 영구 동토층의 해빙으로 인해 그동안 채굴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희토류에 대한 접근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린란드에는 원유, 가스뿐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그린란드 크바네피엘드(Kvanefjeld) 지역의 암석 노두에 자외선을 비추면 주황색과 보라색 등 다채로운 색채가 드러나는데 이는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희토류는 전기적 및 자기적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부터 평면 스크린,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희토류는 일상 기기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음파탐지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광물이다. F-35 전투기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10배에 달하는 900파운드 이상의 희토류가 들어 있다.¹⁵⁾

13) James P. Danoy, 「THE ARTIC: Securing the High Ground」, NSI LAW AND POLICY PAPER (December 2019), pp. 16-17, <https://nationalsecurity.gmu.edu/the-arctic-securing-the-high-ground/> (검색일: 2025.1.10.).

14) 서혜림, “트럼프 눈독 그린란드엔 희토류 풍부...중국 장악력에 견제구”, 연합뉴스(2025. 1. 8), <https://m.yna.co.kr/amp/view/AKR20250108077100009> (검색일: 2025.1.10.).

15) Peter Grier, “Rare-Earth Uncertainty”, Air and Space Forces(December 21, 2017), <https://www.airandspaceforces.com/article/rare-earth-uncertainty/> (검색일: 2025.1.10.).

그린란드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린란드의 크바네피엘드(Kvanefjeld)와 크링레르네(Kringlerne)는 세계 10대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이다. 그린란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질 탐사를 종료하는 경우 새로운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또한, 매장지의 대부분이 해안과 인접하고 있어 채굴된 광석을 가공 시설로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채굴의 경제성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크바네피엘드 광상(鑛床)은 풍력 터빈, 전자 기기 및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중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알칼리 화성암의 매장이 풍부하여 경제 안보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을 통해 희토류에 대한 안정적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국과 협력국 등을 통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동맹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세계적 지배력 유지하기 위하여 그린란드 희토류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크바네피엘드 지역의 희토류 개발권을 소유한 호주 그린란드 미네랄(Australia-based Greenland Minerals)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2018년 “중국의 북극 정책”¹⁶⁾에서 언급하고 있는 북극권 자원 탐사개발과도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자칭 ‘북극 인접 국가’라고 자처하면서 그린란드의 희토류와 주요 광물에 투자하면서, 이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는 중국의 북극권 영향력 저지를 위하여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물론 매입을 통한 영토 편입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16)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_paper/2018/01/26/content_281476026660336.htm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대응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희토류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분쟁이나 영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희토류 수출통제를 무기화하고 있다. 2010년에 중국은 영토 분쟁 중이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여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¹⁷⁾

한편 덴마크로부터의 독립과 경제적 기회 확대를 열망하는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지원을 모두 환영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개발에 기초한 경제적 투자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공항 인프라 투자와 교육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란드 주민들의 요구와 감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희토류 개발과 인프라 투자 및 교육 사업은 물론 그린란드 매입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0 시대 미국은 미·중 경쟁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린란드 매입을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린란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군사적 보호 및 인프라와 광물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과 시사점

트럼프 2.0시대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과 군사적, 경제적 관여를

17) Pete Spotts, "China's lock on market for rare earth elements: Why it matter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Oct 20, 2010), <https://www.csmonitor.com/Business/2010/1020/China-s-lock-on-market-for-rare-earth-elements-Why-it-matters> (검색일: 2025.1.10.).

통해 북극에서 전략적 우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과 첨단기술 기업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자원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프로젝트의 배타적 자국 이익 우선주의의 민낯을 더이상 숨기지 않으리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공격적 북극정책에 대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희토류 확보와 기술 협력: 한국은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북극 연구 협력: 한국은 북극 항로와 관련된 기후 변화 및 해양 연구에 투자하여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외교적 대응: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중립적 위치를 활용하여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자원 관리 및 북극 항로 운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규범 형성에 기여할 방법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북극 협력을 확대하고, 자원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